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 열여덟 번째

조상들의 죄

Jeff Pippenger

2023-11-19

1856년에, 이전에 빌라델비아적이던 밀러주의 재림운동은 제임스와 엘렌 화이트에 의해 라오디게아적이라고 규정되었다. 이어 제임스 화이트는 리뷰 앤드 헤럴드를 통해 그 운동에 라오디게아의 기별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 같은 간행물에서,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에 관한 더 큰 빛이, 화이트 부부가 그를 매우 높이 평가하여 첫아들의 이름을 그의 이름에서 따랐을 정도로 존중하던 하이람 에드슨의 여덟 편 연재 기사로 또한 제시되었다. 그 연재는 앞으로 완결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끝났지만,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첫째 천사의 운동이 빌라델비아에서 라오디게아로 전환되는 시점에, 그 운동은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에서 걸려 넘어졌는데, 이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윌리엄 밀러로 하여금 인식하고 선포하게 이끈 최초의 '시간 예언'을 대표하는 것이었다.

"일곱 때"는 밀러파 성전 기초의 으뜸 모퉁잇돌이었다. 거룩한 기초에 관한 모든 예언적 상징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놓인 터, 곧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를 아무도 놓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11.

그리스도는 터이실 뿐만 아니라, 건축자들이 버리고 그 뒤에 그 돌에 걸려 넘어졌던 기초석이다. 그분은 마침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그 돌이다. 밀러파 역사에서 '일곱 때'는 그 머릿돌을 상징했다.

그리스도께서는 한 이레 동안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확증하셨다. 이스라엘 북왕국을 향한 "일곱 때"의 예언 구조(히람 에드슨이 미완성된 여덟 편의 글에서 지적한)는, 다니엘 9장 27절의 성취로서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확증하신 예언적 한 이레와 동일한 구조를 재현했다.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모으시던 그 한 이레의 구조는,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흠으시던 그 한 이레의 구조와 동일하다. 고대 이스라엘의 흠어짐은 2,520년이었고, 영적 이스라엘의 모음은 2,520일이었다. 그분은 언약을 확증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모으셨고, 그분의 언약의 논쟁 때문에 이스라엘을 흠으셨다. "일곱 때"를 밀러파 성전의 기초석으로 규정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기초석으로 규정하는 것과 완벽히 일치한다. 그 돌을 거절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1856년에,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라오디게아의 문을 두드리며 서 계셨을 때, 그분은 건축자들이 버리려 하던 걸림돌에 대한 지식의 증가를 일으키고자 하셨다. 7년 뒤, 또는 말하자면 상징적인 날로 2,520일 뒤에,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는 문을 닫았다. 안타깝게도 재림주의는 그 지식의 증가를 보기를 거부했다. 당신이 걸려 넘어지는 돌은 당신이 보지 못하는 돌이지만, 그 돌은 여전히 거기에 있다.

내 백성은 지식이 없어 멸망한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네가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겠다. 호세아 4:6

남유다 왕국을 향한 "일곱 때"의 저주는 기원전 677년에 시작되어 1844년 10월 22일에 끝났으며, 이는 다니엘서 8장 14절의 2300년과 함께 종결되었다. "일곱 때"는 재림운동의 "기초이자 중심 기둥"으로 규정된 바로 그 예언의 일부이다. 재림운동의 그 기초이자 중심 기둥은 여러 다른 예언들과 바로 같은 때에 성취되었다. "일곱 때", 이천삼백 주야, 말라기서 3장, 다니엘서 7장 13절,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 비유가 모두 1844년 10월 22일에 성취되었다. 1844년 10월 22일이라는 날짜는 재림운동의 기초가 되는 날짜이며, 그 날짜와 관련하여 확인된 명령은 단 하나뿐이다.

내가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것을 본 그 천사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 계시며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이를 두고 맹세하여 말하기를, 더 이상 때가 없으리라 하였다. 요한계시록 10:5, 6.

화이트 자매는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땅과 바다 위에 서 있던 천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본다.

요한에게 지시한 그 힘센 천사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셨다. 그분이 오른발을 바다에, 왼발을 마른 땅에 두신 것은 사탄과의 대쟁투의 마지막 장면들에서 그분이 수행하고 계신 역할을 보여 준다. 이러한 위치는 온 땅 위에 대한 그분의 지고한 능력과 권위를 나타낸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성경주석, 7권, 971쪽.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지고한 권위를 나타내시기 위해 바다와 땅 위에 서셨다. 이어 손을 들어 "더 이상 시간이 없을지니라"라고 명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밀러주의자들과 언약을 맺고 계셨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한 가지 명령을 주셨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남자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셨다. 모세의 역사 속에서 택하신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는 많은 명령을 주셨으며, 그 명령들에는 제사장만 언약궤를 만질 수 있다는 지시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1844년 10월 22일에 손을 들고 맹세하시기를, 예언적 기간은 더 이상 성경의 예언들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천사들의 구름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실 때 "때와 시기"에 대해 말씀하셨으며, 이로써 깃발로서 두 증인의 승천을 예표하셨다. 그때 그가 명하신 것은 "때와 시기"에 관한 것이었다.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에게 물어 이르되, 주여, 이때에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겠나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니라.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6-8.

예수님은 때와 시기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솔로몬을 통해 말씀하시며 '때와 시기'가 있음을 입증하셨기 때문이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각기 정한 시기가 있다: 전도서 3:1.

성경 기록 안에는 '기묘한 계산자'인 '팔모니'를 증거하는 '때와 시기'들이 있다. 그러나 1844년 10월 22일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는 시간에 근거한 예언적 기별을 제시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권면은 그분의 정결케 된 백성이 계시록 11장에서 기치로 높이 들려지기 직전의 역사를 대표하며, 그것은 그분이 1844년 10월 22일에 주신 명령과 일치한다. 재림운동의 기초가 된 그 날짜에 그리스도께서는 더 이상 시간에 기초한 예언적 기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명하셨고,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의 승천을 예표한 그분의 승천 때에도 그 명령을 반복하셨다.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은 주께서 그분의 오심과 관련하여, 혹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 그분의 다른 어떤 약속과 관련하여, 그분의 말씀이 성취될 때를 정하려 드는 사람은 누구든지 경계하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친히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매우 열성적으로 보일 수 있으며, 그들의 이론을 세상과 교회 앞에 내세우기 위해 자원을 투입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오류를 진리와 뒤섞기 때문에, 그들의 메시지는 속임수이며 영혼들을 그릇된 길로 이끌 것이다. 그들에게는 단호히 맞서 반대해야 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거짓을 가르치는 자들이며 거짓에 진리의 도장을 찍으려 애쓰고 있기 때문이다. 목회자들에게 보내는 증언, 55.

화이트 자매는 우리는 그분의 재림만이 아니라 특별한 의의를 지닌 어떤 것을 특정하는 시한 기별을 결코 갖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밀러파 운동의 주제였던 시한 예언은 1844년 10월 22일에 끝났으며, 그 기초가 된 날짜와 관련된 유일한 명령은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데 다시는 시간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첫째 천사의 초기 운동 중, 빌라델비아에서 라오디게아로 넘어가는 바로 그 전환점에서, 밀러파 운동의 기초 진리에 더 큰 빛이 비추어졌다. 그로부터 7년 뒤, 곧 상징적 2,520일 뒤, 또는 "광야" 뒤인 1863년에, "일곱 때"라는 기초석이 건축자들에 의해 제쳐 두어졌다.

셋째 천사의 마지막 운동에서, 라오디게아에서 빌라델비아로 전환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조상들의 죄를 자백하는 것을 포함하는 시험이 주어진다. 조상들에게 있어서 기초에 대한 시험은 '일곱 때'였으며, 그것이 그들의 주춧돌이었다. 그 마지막 운동이, 그들의 조상들이 자기들의 주춧돌을 무시했듯이, 토대가 되는 날짜와 연관된 유일한 명령을 무시하게 될 것인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바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들이 지은 죄를 되풀이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토대가 되는 날짜에는 죄를 짓지 않았다. 그 밖의 여러 이유들 가운데서도 그 날짜에 그들은 여전히 빌라델비아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조상들은 라오디게아로 변했을 때 그에 수반되는 점점 더해지는 빛과 함께 '일곱 때'를 거절함으로써 그들의 토대가 되는 시험에 실패했다.

1863년에 그들이 겪은 근본적인 실패에 앞서, 7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라오디게아적인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다. 7년은 "일곱 때"와 "광야"를 상징한다. 1856년부터 1863년까지의 "광야" 이후, 그들은 근본적인 시험에 실패했다.

셋째 천사의 운동의 첫 실망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기초가 되는 날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유일한 명령을 거부함으로써 죄를 지었다. 그들은 더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예언적 기별에 시간 예측을 끼워 넣기로 선택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아들에게 할례를 베푸는 일을 소홀히 한 모세의 죄와, 금지된 일임을 알면서도 언약궤에 손을 댄 웃사의 죄를 반복하였다. 셋째 천사의 운동은 옳지 않다고 아는 일을 했다! 누군가 그 사실을 덮어 칠하고자 한다면, 남은 페인트를 몽땅 써서, 모세와 웃사 모두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역을 드러냈으며, 그들이 모든 개혁선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 곧 모든 개혁선이 앞을 가리키던 바로 그 개혁선의 첫 실망을 전형화했다는 진리까지도 덮어 버리라. 개혁선들에서의 첫 실망에 대한 예증들은 알파와 오메가의 서명을 지니고 있으며, 그 기록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그 유익을 받기를 거부한다 할지라도.

첫째 천사의 운동에는 일곱 해의 기간이 주어졌는데, 이는 '일곱 때'의 광야를 상징하는 것으로, '일곱 때'의 빛과 더불어 라오디게아 기별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일곱 때'의 저주는 주의 입에서 토하여 버림을 당하는 저주이다. 1863년에 그들은 '저주'가 담긴 일, 곧 여기고를 재건하는 일을 되풀이했다. 1856년부터 1863년까지의 일곱 해는, 고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일곱 때'의 저주를 자초하게 했던 죄의 반역을 축소해 보여주는 예증이다. 현대 이스라엘은 1863년에 조상들의 죄를 반복했다.

셋째 천사의 운동은 모세와 웃사가 그랬던 것처럼 첫 실망의 시험에 실패했다. 그들은 이어서 사흘 반의 '광야' 기간 동안 거리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제 그들은 보혜사의 소리에 의해 몸으로 빚어지고 있다. 보혜사의 소리는 광야에서 나는 '소리'를 통해 주어지고 있으며, 그들은 이제 때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곱 때'의 시험에 직면하고 있다. 그들은 이미 때를 정하는 것의 시험에서 실패했다.

그들이 "일곱 때"가 타당한 진리인지 여부로 시험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전에 "일곱 때"를 타당한 예언으로 받아들인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2,520년의 흠어짐에 대한 예언을 믿는다고 고백해 왔다. 그러나 그들은 "일곱 때"에 관한 새로운 시험의 빛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수 있다. 그들은 1856년에 그들의 조상들이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다. 새로운 빛은 요한계시록 11장의 삼일반이 단지 프랑스 혁명을 지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현진리의 현실이라는 것이다.

일곱 우레의 숨겨진 역사가 드러나는 것과 일곱째 인의 개봉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이제 봉인이 풀리고 있음을 알려 주는 두 증인인가?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전체가 마지막 때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가? 그렇다면, 삼일 반은 열 처녀의 비유에서 지체하는 시간을 나타내는가? 그렇다면, '일곱 때'의 처방은 2020년 7월 18일 내슈빌 예측에 참여한 이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을 실제로 의미하는가?

와! 당신에게 시험이 있네요! 잠에서 깨어나 자신들이 지체의 때에 있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정말로 삼일 반의 끝에 자신들의 죄와 아버지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까? 예언에서 시간을 사용하지 말라는 명령을 무시한 것이 정말 죄였습니까?

내슈빌에 대한 실패한 예언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의도된 목적이었다고 하는 입장을 취했고, 그 후에도 그 주장을 고수하려 애써 온 이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예언에 시간을 적용하는 죄를 넘어 또 하나의 지적을 덧붙이고자 한다. 내슈빌에 대한 거짓 예언과

관련해 일어난 일은 1844년에 주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대한 반역의 단순한 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재림교회 밖에 있는 이들에게 예언의 신에 나오는 예언들이 잘못되었다고 말해 버리는 행동이었다. 그것은 예언의 신의 저술들에 대한 오명이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엘렌 화잇의 글이 조셉 스미스나 노스트라다무스의 글과 다를 바 없이 중요하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엘렌 화잇의 귀한 글이 우리의 반역이라는 추악한 말들과 뒤섞여 더럽혀졌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반역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언의 신에 대한 반역이었다. 요한이 밧모라 하는 섬에서 박해를 받은 것은 성경과 예언의 신보다 자신의 인간적 의견을 더 높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 두 증인에게 순종했기 때문이다.

나 요한은,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밧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
요한계시록 1:9.

우리는 첫 실망의 때에 우리 조상 모세의 죄를 되풀이했으며, 이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1856년에 와 있으므로 이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때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일곱 때"에 대한 새로운 빛이 있습니다. 1856년에 초기 운동이 빌라델비아에서 라오디게아로 전환하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라오디게아에서 빌라델비아로 전환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1856년에 우리의 선배들은 "일곱 때"에 관한 지식의 증가에 대한 출판물 중단했습니다. 우리는 그 빛의 출판을 막지 못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아 이 빛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초기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를 세운 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돌이 실제로 거기에 없다고 가장하고 계속해서 그것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심판이 이미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머리를 모래 속에 묻고 있을 한 세기 이상의 시간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께서 '어떤 일의 끝은 그 시작으로 드러난다'는 원리로 우리를 가르치시도록 허락한다면, 알파와 오메가께서 내슈빌에 대한 예언이 우리 조상들에게서 이미 예표되었음을 보여주고 계심을 쉽게 볼 수 있다. 이 진리를 인정하면, 우리는 그 예언 이후로 그 실패한 예언을 정당화하려고 어떤 식으로든 인간적 논리를 만들어내려 했던 모든 노력이 무화과 잎사귀에 지나지 않았다는 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원수의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지 않으셨음을 보게 될 것이다. 그분은 거기에 계시긴 했지만, 다만 들어오시기를 구하시며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뿐이었다. 인간적 논리라는 무화과 잎사귀가 벗겨진다면, 우리가 내슈빌 예언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해 온 그 부정, 혹은 결함 있는 인간적 논리가 우리가 그리스도께 거슬러 걸어왔다는 증거임을 또한 보게 될지도 모른다.

1856년에 빌라델비아적 재림운동은 라오디게아로 변했고,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주님은 여선지자와 그녀의 남편의 말을 통해 그것을 확증하셨다. 그 라오디게아인들의 마음의 문 앞에 서서 그리스도는 들어가 그들과 함께 식사하겠다고 제안하셨다. 그가 함께 식사하려고 가져온 음식은 '일곱 때'의 주춧돌이었다. 그들은 거절했다.

2023년에 마지막 운동은 이제 라오디게아에서 빌라델비아로 옮겨가고 있다. 이는 여덟째 교회가 일곱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께서 그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이를 확증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최근에 죽어 마른 뼈가 된 자들의 문 앞에

서서 들어가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겠다고 하시며, 그분이 그들과 나누고자 하시는 식사는 1856년에 그들의 조상들과 나누려 하셨던 바로 그 동일한 식사이다. 그것은 1856년에 그들의 조상들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단지 '일곱 때' 교리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그것은 '일곱 때'의 쓰디쓴 처방이며, 그 처방은 종종 삼키기 어려운 종류의 겸손을 요구한다.

여호와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의 통치자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네 마음이 높아져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바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 하였으나, 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니니, 비록 네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두었다 할지라도. 보라,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그들이 네게 숨길 수 있는 비밀이 없도다. 에스겔 28:1-3.

어쩌면 우리 중 내슈빌 예측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니엘보다 더 현명한 걸까?

그가 통치하던 첫해에 나 다니엘은 책을 통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칠십 년에 이를 것이라고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주의 말씀에 따른 그 연수를 깨달았다. 나는 주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기도와 간구로 구하되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내 하나님 주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말하였다. 오 주여,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며,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이시여, 우리가 죄를 범하고 불의를 행하며 악을 행하고 반역하여 주의 율례와 규례에서 떠났나이다.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우리의 조상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으나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나이다. 오 주여, 의는 주께 속하였고 우리에게는 오늘과 같이 얼굴의 수치가 있나이다.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가까이 있는 자나 멀리 있는 모든 이스라엘에게, 곧 그들이 주께 범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흠어 보내신 모든 나라들에서 그러하나이다. 오 주여, 우리와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우리의 조상들에게는 얼굴의 수치가 있나니,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니이다. 비록 우리가 그를 거역하였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주께는 자비와 용서가 있나이다. 우리는 또한 우리 하나님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그의 법도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가 그의 종들인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 앞에 두신 것이니이다. 참으로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떠나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저주와 맹세가 우리 위에 쏟아졌나이다. 이는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우리와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들을 거슬러 말씀하신 그의 말씀을 우리에게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 확증하셨나니, 온 하늘 아래에서 예루살렘에 행해진 것 같은 일이 이루어진 적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에서 돌이켜 주의 진리를 깨닫고자 주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재앙을 지켜 보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내리셨나이다. 주 우리 하나님은 행하시는 모든 일에 의로우시거늘, 우리가 그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주 우리 하나님이며, 주께서는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주의 이름을 얻으셨나이다. 우리가 죄를 지었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주의 모든 의로우심을 따라 간구하오니, 주의 성읍 예루살렘 곧 주의 거룩한 산에서 주의 진노와 분노를 돌이키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우리 사방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수치가 되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하나님이며,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황폐한 주의 성소에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나의 하나님이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여시어 우리의 황폐함과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그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주 앞에 간구를 아뢰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크신 긍휼을 의지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며, 주 자신의 명예를 위함이니이다.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나이다. 내가 말하며 기도하여, 나의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간구를 주 내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을 때, 곧 내가 기도 중에 말하고 있을 때, 처음에 환상 가운데 보았던 그 사람 가브리엘이 급히 날아와 저녁 제사 드릴 즈음에 내게 다다라 나를 만지니라. 그가 내게 깨닫게 하며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이제 내가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느니라. 다니엘 9:2-22.